

NBA 정규리그 6개월 대장정 돌입

미국프로농구(NBA) 2021~2022시즌 정규리그가 지난 19일 개막해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앞선 두 시즌 간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은 NBA는 이번 시즌에는 많은 경기장에서 팬들의 함성과 함께 정상적인 시즌을 치르게 된다. 2022년 4월까지 팀당 82경기를 치르고, 동·서부 콘퍼런스 7~10위 팀들이

벌이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이어 양대 콘퍼런스 8개 팀씩 총 16개 팀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가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챔피언결정전은 2022년 6월에 끝난다.

역시 우승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왕좌를 차지할 1순위로 꼽히는 팀은 브루클린이다. 브루클린의 대항마



▲ 우승후보 브루클린 네츠의 빅5. 사진=twitter(mymixtapez)

로는 레이커스가 꼽히고 있다. 레이커스는 2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레이커스가 우승하면 보스턴 셀틱스(17회)를 제치고 NBA 최다 우승기록(18회)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레이커스가 시범경기에서 6전 전패를 당한 점은 짚점이다. 여기에 지난 시즌 50년 만에 감격의 우승을 일궈낸 밀워키는 또 다른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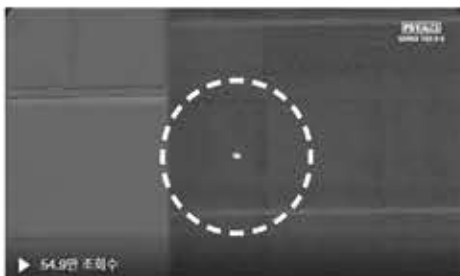
개막 전 30개 구단 단장 설문 조사에서 72%가 브루클린을 우승후보로 지목했고 레이커스(17%), 밀워키(10%)가 그 뒤를 이었다. 베팅업체 윌리엄 힐도 브루클린의 우승 배당률을 23/10으로 책정해 레이커스(4/1), 밀워키(8/1)보다 우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ALCS 5차전 일시 중지시킨 불빛의 정체

지난 20일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과 보스턴 레드삭스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이 열렸다. 그런데 5회 말, 보스턴의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주심은 외야를 응시하던 중 갑자기 경기를 중지시켰다. 중계 카메라는 바로 센터 필드 쪽의 펜스 쪽을 잡았고, 그곳에서는 정체불명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OSEN'에 따르면 당시 경기 상황은 휴스턴이 선발 프랭크 발데스의 호투에 힘입어 1-0으로 앞서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불빛이 경기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었던 만큼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켰고, 다행히도 그 불빛은 바로 사라져 경기가 속개됐다.

중견수 쪽이었기 때문에 타자의 시야가 방해받을 수도



▲ 경기 중 새어나오는 정체불명의 불빛위 사진 완안. 아래는 바의 내부에서 본 경기장 모습. 사진=osen

있었던 상황이었다. 상대 팀의 타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을지는 사실 만무하지만 그래도 두 팀의 승부가 워낙 팽팽하다 보니 음모론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경기가 끝난 뒤 그 불빛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 불빛은 센터 필드 벽 뒤에 있는 바에서 관중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던 방송사의 조명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불빛이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됐다는 사실을 안 한 보스턴 지역의 방송사 기자가 그 바에서 직접 설명하면서 밝혀졌다.

바의 조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한 방송사가 관중 인터뷰를 하면서 강한 조명을 운동장 쪽으로 비치는 바람에 밖에서 그 불빛이 보였던 것이다.

PGA 선수 중 가장 무거운 디샴보의 캐디백



▲ 디샴보의 캐디백에 든 물품들. 사진=golf.com

프로 골퍼의 캐디백 무게는 일반적으로 20kg 안팎이다. 여분의 공과 옷, 우산, 음식 등을 넣으려면 '투어급'의 큰 캐디백을 써야 한다. 가방 무게만 4~5kg. 캐디들은 대회마다 캐디백을 메고 평균 25km가량을 걸으며 선수를 보조한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수들은 힘들어하는 캐디를 배려해 가방을 줄이거나 소지품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브라이언 디샴보(28·미국)는 항상 팍 찬 가방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디샴보의 캐디인 브라이언 자이글러는 전날 미국 골프닷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 "디샴보의 캐디백 무게는 적어도 55파운드(25kg)는 넘는다."며 "아마도 투어에서 가장 무거운 캐디백일 것 같다. 연습 라운드 편 무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자이글러는 디샴보의 가방을 메기 위해 근육 운동까지 한다고 했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서라는 게 그의 말이다. 자이글러는 "체력을 더 키우지 않으면 이 직업을 오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내년 1월까지 몸무게를 10파운드(4.5kg)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골프닷컴에 따르면 디샴보는 캐디백에 클럽 14개 외에도 퍼팅 연습기 2개와 여분의 공을 넣는다. 여분의 드라이버 헤드, 시계, 거리측정기도 들어 있다. 디샴보의 벤츨리 자동차 열쇠, 우산, 블루투스 이어폰, 단백질 셰이크 등도 그의 캐디백을 차지하고 있다. 자이글러는 디샴보의 가방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하느냐는 물음에 "항상 그렇다."며 웃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